

현대 직물디자인에 나타난 절충주의적 경향과 특징

Eclectic Trends and Characteristics in Modern Textile Design

주저자 : 박남성 (Park, Nam Sung)
상명대학교 디자인학부 섬유디자인전공

1. 서론

2. 절충주의

- 2-1. 절충주의 개념
- 2-2. 절충주의의 발전배경

3. 포스트모던 예술에 나타난 절충주의적 경향

- 3-1. 문화적 요소의 복합
- 3-2. 시대적 감각의 융합
- 3-3. 지역적 특성의 혼합

4. 현대 직물디자인에 나타난 절충주의적 경향

- 4-1. 문화적 요소의 복합
- 4-2. 시대적 감각의 융합
- 4-3. 지역적 특성의 혼합

5. 절충주의적 경향에 의한 현대 직물디자인의 특징

- 5-1. 직물디자인에 대한 시각의 전환
- 5-2. 유희적 표현
- 5-3. 다문화적 표현

6. 결론

참고문헌

(要約)

새로운 미의식의 창조를 위해 이질적이고 대립적인 요소를 융합·혼합하는 절충주의는 다양성, 다원화에 기초하므로써 개성화, 다양화를 추구하는 현대인의 요구에 부합되어 각광 받고 있다. 본 연구는 현대직물디자인에 표현된 절충주의

양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대예술분야를 통해 그 특성을 규명하고 이를 직물디자인에 적용시켜 새로운 경향이 제시한 미적효과와 조형적 특성을 고찰하므로써 현대직물디자인의 변화양상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현대 직물디자인에 나타난 경향은 다음의 3개로 구별되는데, 1) 문화적 절충에 의한 고급문화와 저급문화의 복합, 2) 시대적 절충에 의한 다양한 시대적 감각의 융합, 3) 지역적 절충에 의한 지역적 특성의 혼합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경향으로 본 직물디자인의 특징은 1) 직물디자인에 대한 시각의 전환을 가져왔고, 2) 유희적 표현을 중시하였으며 3) 다문화적 표현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이 직물디자인의 절충주의적 경향은 다변화되고 있는 현대 사회를 대변해주고 미래 직물디자인을 위한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하여 주므로써 이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Abstract)

Eclecticism, fusing and mixing heterogeneous and contrasting elements to create a new awareness of beauty, is based on diversity and pluralism, and as such fits well with the demand of the contemporaries who pursue individualization and diversification, which explains the current vogue for Eclecticism. As a precondition to grasp eclectic styles that are expressed in modern textile design, this study looks into the characteristics of eclecticism in modern art and applies the insight so gained to textile design in an attempt to understand transformations of modern textile design by considering the aesthetic effects and plastic characteristics suggested by the new trend. The result of our research indicates that the trends that characterize modern textile design can b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as follows: 1) Mixing of high culture and low culture through cultural fusion, 2) Fusion of differing sensitivities through blending of times, 3) Blending of regional characteristics through geographical mixing.

Characteristics of textile designs as influenced by these trends can be summarized as: 1) a conversion in the way textile designs are viewed, 2) increasing emphasis on the playfulness of representation and 3) multi-cultural expressions.

In short, eclecticism of textile design represents a phase of modern society that is increasingly oriented toward multifacetedness and points to a direction for a new possibility of future textile designs, necessitating a continuous research along this line.

(Keyword)

Eclecticism, Textile Design, Textile Trend

1. 서론

현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문화적·사회적 다양성이 가속화되고 있어 획일화에서 벗어나 차이성, 융통성, 유동성, 소통 등이 부상하고 융합현상이 전 문화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또 문화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어디서든지 이 같은 융합현상은 쉽게 찾아볼 수 있을 만큼 보편화된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¹⁾ 이러한 시대의 변화는 절충주의적 양식에 의해 새롭게 표현되어지고 있으며, 이 시대의 전체적인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절충주의 양식은 고급문화와 저급문화, 삶과 문화, 순수예술과 대중예술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모든 영역간의 조화로운 화해와 공존을 지향하고 있다. 다양성을 수용하는 절충주의는 다른 시대, 다른 문화로부터 양식과 이미지를 차용해 혼합, 접목 시킴으로써 기존의 개념과 원리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사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현대 직물디자인도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절충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새로운 변화의 양상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개념을 탈피하고 민주적이고 자유분방한 방식으로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었다.

절충주의 양식은 종래의 직물디자인에서 준수되었던 가치와 사고에서 벗어나 재해석, 새로운 가치의 부여로서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해내므로써 직물디자인에 새로운 시각과 기준을 제시하였다.

절충주의는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흐름으로 여러 학문분야에서 회자되었고, 패션에 있어서도 다수의 연구가 선행되었으나,^{2) 3) 4)} 반면 항상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있는 직물디자인에서 중요하게 언급되어야 할 양식인 절충주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본 연구는 의의를 둔다.

본 연구는 현대 직물디자인에 나타난 새로운 변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러한 변화를 이끈 절충주의에 대해 이의 개념 및 역사적 의미에 관해 구체적으로 고찰하고, 절충주의가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난 현대 예술분야에⁵⁾ 절충주의가 미친 영향 및 특성을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현대직물디자인에 나타난 새로운 경향을 분석하고 아울러 그 특징과 표현방법에 대해서도 조명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 방법에 의한 이론적 고찰과 절충주의 양식이 도입된

1980년 이후의 해외 직물, 패션전문지 등에서 추출한 사진을 바탕으로 실증적 고찰을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절충주의에 의한 직물디자인의 새로운 개념 및 의미를 분석하였다.

2. 절충주의

2-1. 절충주의의 개념

절충의 의미는 「선택한다」는 것으로 가장 유용하거나 타당한 요소들을 가능한 모든 전거로부터 선택하는 것이며,⁶⁾ 그리스어 'eklegein (뽑다, 선택하다)'에서 유래되었다.⁷⁾

철학 및 신학에서 절충주의는 독자적인 체계를 세우면서도 다른 하나의 체계에 의존하지 않고 몇 개의 체계로부터 옳다고 생각되는 요소를 빼내어 하나의 체계로 삼는 일, 이론, 학파를 말한다.⁸⁾

인간의 관습 속에는 애매한 모방에 친숙한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천적 모방성과 문화에 내재한 절충성은 자연적 발화라고 할 수 있다.⁹⁾ 그리하여 역사상 모든 양식이 절충적이지는 않아도 혼성적이며 상호 접속 되어가는 속성이 있는데 이에 기인되며, 절충주의란 단어는 이전에도 종종 사용되었다. 절충주의라는 말의 전면으로 부각되어 주목을 끌게 된 것은 기존의 가치관과 이미지를 탈피하여 상대성, 다원론, 관용주의로 표현될 수 있는 가치를 추구하게된 포스트모더니즘 하에서이다. 포스트모던 문화양식에는 절충주의와 다원주의를 지향하므로써¹⁰⁾ 대중문화와 고급문화의 경계, 장르간의 경계가 와해되며 고급 예술분야가 대중문화와 뒤섞이거나 혼합되므로써 혼성형식을 등장시켰다. 이러한 다원화 현상은 궁극적인 가치의 존재를 부정하며 수직적인 위계질서 보다는 수평적인 다양성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문화 영역에서는 진리나 미를 추구하는 가치체계 대신 다양성을 수용하며 모든 영역이 독자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상호 침투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¹¹⁾

이처럼 다양성을 수용하는 절충주의는 일반적으로 양립되지 않는 요소를 의도적으로 결합하거나 섞이기 어려운 현상이나 요소들을 공존하게 하거나 병치하는 것으로서 이는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해내는 하나의 '가능성'이라 할 수 있다.

1) 오광수: 퓨전현상, 시대문화를 뒤흔든다, 뉴스메이커, 52,(1999.7.15)
2) 양희영·양숙희: 20세기 후반 패션에 나타난 절충주의적 경향, 한국의류학회지, 24(4), (2000).
3) 전해정·나현신: 복식의 역사적 절충주의 양식, 한국의류학회지, 25(10), (2001).
4) 김민정: 20세기 말 패션에 나타난 Crossover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1995).
5) 임영방: 포스트모더니즘과 미술-건축에 있어서의 다의성과 절충주의, 예술과 문화연구,143.

6) 윤도근: 포스트모더니즘과 건축, 포스트모더니즘과 문화, 문예 출판사, 398,(1991).
7) 두산백과사전: 22권, 551, (1996).
8) 전해정·나현신, op. cit., 88.
9) 윤도근, op. cit., 397.
10) Charles Jenks: What is Post- Modernism, 도서출판 청람, 11-12, (1995)
11) 이봉덕: 21세기 전환기 패션의 미학적 특성, 숙명여자대학교, 51, (2000).

2-2. 절충주의의 발전 배경

절충주의는 신학과 철학분야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으며 특히 전체적으로 결합되지 않는 사상의 학파들을 수용한 로마의 치체로(Cicero)의 절충주의는 로마인의 절충주의를 반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철학학파들의 경향을 초래하였다.¹²⁾ 또한 현대 철학에서는 19세기 프랑스의 빅토르 쿠쟁(Victor Cousin)과 그 제자들의 학파가 절충주의의 전형으로서, 19세기 절충주의 건축의 시발점이 되었다.¹³⁾

절충주의는 본래 서로 대립되는 여러 테제를 새로 발견된 단계 높은 견지에서 조정·융합시키는 방법으로 해석되었으며, 또한 이질적인 체계의 구성물인 여러 테제 가운데 융화시킬 수 없는 것은 무시하고 알맞은 것만을 확정적 기준 없이 선택하여 병렬하는 단일한 방법으로 이해되기도 한다.¹⁴⁾

예술분야에서는 16세기 매너리즘(Mannerism)양식의 건축 및 미술에서 그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다. 예술양식에서의 절충주의는 독자적인 양식의 창조가 아니라 기존의 여러 양식 중에 장점을 취하는 경향으로, 19세기 중엽의 고전주의(Classicism)와 낭만주의(Romanticism)와의 타협을 도모한 건축상의 양식과 프랑스의 어거스트 앙그르(Jean Auguste Dominique Ingres)의 신고전주의와 유진 라크로와(Ferdinand Victor de Lacroix)의 낭만주의 조절 및 절충에 의한 회화양식을 들 수 있다.¹⁵⁾

매너리즘에서는 불안정한 현실극복의 의지로서 양립되지 않는 요소를 결합하는 파라독스 즉, '이율 배반성'과 '생 자체의 모순'을 예술에 표현하므로 절충적 자기표현을 낳았고,¹⁶⁾ 낭만주의에서는 개개의 특수성에 대한 관심으로의 이행이 고전적인 양식만이 아니라 각 시대의 양식이 선택되어야 한다는 사상에서 19세기 절충주의가 탄생되었다.¹⁷⁾ 20세기 후반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형태로 절충주의가 나타났다. 이는 현대 과학기술 혁명 시대의 다양한 변화와 세기말의 가치혼란의 시기를 거치면서 대두된 인간의 '물화(物化)' 현상과 심리적 소외의 현상 등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필요 의식에 의해 다양한 요소의 타협에 의한 절충현상을 야기 시키고 이시대의 전체적인 문화를 선도했다.

3. 포스트모던 예술에 나타난 절충주의적 경향

앞서본 바와 같이 범주와 장르를 혼합하는 절충주의는 1970년 포스트모더니즘을 특징 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12) 전해정·나현신, op. cit., 88.

13) 백과사전, op. cit., 551

14) Ibid., 551

15) 유재길: 서양미술사, 조형사, 122, (1996)

16) 이정후·안선경·양숙희: 현대복식에 나타난 매너리즘(Mannerism)적 경향에 관한 연구, 복식 33호, 160, (1997).

17) 유재길, op. cit., 123

포스트모더니즘의 확대와 함께 기존의 예술, 문화영역에서 영향을 미치므로서 민주적이고 자유분방한 혼성형식을 등장시켰다. 즉, 미술에서는 평면과 입체가 결합하고 미술적 요소와 비미술적 요소가 결합하고 연극과 무용, 클래식과 팝, 문학과 컴퓨터가 합쳐져 장르간의 통합 및 장르 해체가 가속화 되었다. 또한 성, 신분, 문화가 혼합되고 학문간의 영역이 붕괴되며 디자인과 기술, 감성과 이성이 융합되어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혼성형식은 예술 분야에서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나 문화적, 시간적, 공간적인 절충과 초월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급화 저급,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등의 요소들을 절충시키므로서 상반된 미적가치가 합쳐진 사상과 가치의 공존이 주류를 이루면서 새로운 미적 개념이 제시되고 있다.

3-1. 문화적 요소의 복합

현대 과학의 진보에 의한 대중매체의 발달은 이의 다각화를 추진하므로서 다양한 문화적 경험들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대중문화의 보급과 확대는 문화의 전반에 기존의 질서를 와해하고 새로운 문화적 흐름을 낳는 요인이 되었다.

1960년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한 절충주의는 특히 대중문화적 요소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수용하므로서 이들에 의한 새로운 문화 형성을 가능하게 하였다.

예술전반에 미친 절충주의적 영향은 전시대 수렴되었던 예술과 일상생활,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사이의 엄격한 구분이 없어지고 예술의 각 장르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므로서 예술과 대중문화를 혼합할 뿐 아니라 그 둘 사이의 경계를 와해시켰다.¹⁸⁾

미술 분야에서는 순수예술/응용예술 또는 예술품/기계제품의 구분이 허물어지고 상품과 예술사이의 경계를 흐리게 하는 상품미학이 발달하게 되었다. 즉, 과거시대의 걸작을 이미지로 처리하여 현대적 복제 기술을 이용하여 원작을 무한히 재 생산하므로서 예술작품이 가지는 독특함과 예술적인 아우라를 파괴한다. 또한 대중 소비자들이 일상적으로 대하는 제품들과 유명대중 스타의 이미지들을 예술작품으로 전환시키므로 예술과 대중문화를 혼합할 뿐 아니라 그 둘 사이의 경계를 와해시켰다.

패션에서는 절충주의에 의해 그동안 배제되었던 하위 문화적 요소들이 패션에 등장하게 되었다. 즉, 50년대 테디보이에서부터 70년대 펑크족에 이르기까지 하위문화를 중심으로 한 안티 패션적이고, 탈 장르적인 스트리트패션의 시도들이 패션문화로 자리잡게 되었으며,¹⁹⁾ 80년대에는 더욱 확장된 다원화의 흐름과 함께 스트리트패션은 하이패션계에도 상향 전파되어 주목받는 테마로 등장 하였으며 일반화 되어지게 되었다. 즉, 다소 과격하고 충격적이기 까지 하던 하위문

18) 경노훈·윤민희: 디자인 문화와 생활, 도서출판 예경, 165, (1999).

19) 박명희: 1980년대 패션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46, (1991).

화 집단의 패션이 보다 세련되고 다양하게 제시되어지게 되었다.

대중문화의 일부로서 절충주의적 경향을 잘 반영하고 있는 광고문화는 대중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사회적 수단과 문화적 상투성에 의존한다.²⁰⁾ 현대 광고들은 제품에 대해 직접적인 설명을 하기보다는 광고의 상징적, 문화적 측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 즉 광고는 지시 대상적 의미를 벗어나 이미지, 분위기, 정서, 감정 등을 전달하므로써 그 자체가 또 다른 문화적 상품이 되게 하였다.²¹⁾ 광고는 잡종적, 복합적, 절충적인 방법과 구성수단을 사용하여 이미지의 혼합, 대중문화와 예술로부터의 교묘한 차용, 노골적인 과거의 재생 등을 시도하여 표현방식에 있어서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

3-2. 시대적 감각의 융합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하여 출발한 포스트모더니즘은 전통적 요소를 도입하므로써 대중적 언어로서 문화적 의미를 부여하고자하였다. 역사적 전통성의 요소들은 그것에 접근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를 제공하는 정보시대 및 하이테크 시대로 인해 더욱 가깝게 다가왔으며 이러한 역사적 타협에 의한 절충현상이 야기되어 복고풍이 등장하게 되었다. 복고풍은 과거에 대한 노스텔지어로서 역사의 순환개념에 의해 다른 시대에도 문학, 미술, 패션분야에 흔히 있었으나 80년대에는 과거의 답습 아닌 모방이 아닌 요소들을 절충적인 방안으로 현대에 맞게 재해석하여 새롭게 발전, 재생시켜 새로움을 창출하였다는데 특징이 있으며,²²⁾ 이는 시간차를 극복한 시대성의 절충으로 의미가 있다.

복고풍은 특히 건축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새로운 시대적 양식을 출현시켰으며 이에 대해 “역사적 절충주의”라는 명칭을 부여하였다.²³⁾

건축에 나타난 역사주의는 정선된 역량과 과거의 흔적을 복원하는 현실화의 경향을 지향한다는 것으로 역사적 전통의 참조 및 과감한 도입을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 건축은 형태의 복잡성, 상호 대립적 요소의 결합, 장식의 부활, 고전적 이미지의 상징화 등을 통해 의미와 기호체계의 하나로 등장하게 되었다.²⁴⁾ 이러한 역사적 요소의 도입으로 건축은 대중을 포함하여 여러 차원에서 읽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지역의 자연 환경적 조건과 문화적 풍토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던 전통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인간적 욕구 충족 및 역사적 유희를 즐기게 하여 대중적 친화력을 갖추게 되었다.

패션에 나타난 복고풍은 한 스타일 안에 여러 시대가 동시

에 재현되어 나타나는 것으로서 시대를 초월하는 다양한 도입이 이루어 졌는데 이는 과거를 단순하게 모방하기보다는 역사적 테마를 재해석하여 과거와 현대의 매혹적인 병렬관계를 만들어 새롭게 발전, 재생시켰다.²⁵⁾ 즉, 과거의 대표적 스타일, 실루엣 등이 현대적 감각의 새로운 재료 및 기능과 결합되기도 하고 현대적 스타일에 전통적 직물과 과거의 수공예적 기법이 도입되기도 하면서 자유로운 절충과 결합으로 새로운 현대 패션으로 거듭나고 있다. 패션에 있어서 복고적 요소는 과감한 절충적 표현에 의해 현대패션에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였다.

3-3.지역적 특성의 혼합

현대 사회의 발달된 통신과 대중매체는 지리적 여건에 관계없이 전 세계의 소식과 문화를 시차 없이 전달하게 됨으로서 세계를 지구촌이라는 단일 공동체로 만들게 되었고, 이로써 다른 문화에 대한 관심과 접촉이 어느 때보다 수월하게 되었다. 이러한 개방적인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오랫동안 세계를 지배해오던 서구 중심적 사상에서 벗어나 소외되었던 제3세계권 국가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대두되었고 이는 비주류 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과 융합현상을 가져오므로써 지역간의 거리차를 뛰어넘는 지역간의 절충을 드러내었다.

이러한 서구문화와 이 문화의 만남은 이질적인 문화들이 접촉했을 때 동질화 되거나 융합되는 문화변용의 현상을 나타내게 되었고 이로써 민속적이고 이국적 경향이 대두되었다.

민속적 경향의 특징인 이국 취향의 사고는 정신주의 운명론에 바탕을 둔 동양 문화로부터 때묻지 않은 원시적 정취를 간직한 아프리카 원시문화, 정열적이고 감각적으로 생도하고 이국적 느낌의 라틴문화에 이르기까지를 포함하는데, 이러한 제3문화권의 전통문화는 현대 서양문화 양식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²⁶⁾

민속적 양식은 자국문화 중심의 사고에서 세계에 대한 관심으로 이국 문화를 재평가하려는 사회 가치관의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각 지역의 서로 다른 민족에 의해 발전된 특유한 전통문화를 서로 혼합하기도하고 현대적으로 재구성하므로써 풍부한 창조가능성을 제공하였다.

패션디자인에서는 이국적인 요소를 하이패션과 히피패션 모두에서 받아들였으며, 이것은 절대적 이상미에 대한 도전, 새로운 미의식의 창조라는 결과를 낳았다. 서양복식과 이 문화복식의 절충으로 나타나는 패션의 테마로는 크게 문명에 몰들지 않은 순수한 아프리카 감각을 상징하는 원시풍, 남미, 아프리카 등의 비기독교 국가들의 민간전승적 문화를 의미하는 민속풍, 아시아 지역의 고도로 양식화된 궁정문화

20) 존 워커, 정진국역: 대중매체시대의 예술, 열화당, 64, (1987).

21) 경노훈·윤민희, op. cit., 171.

22) 박명희, op. cit., 41.

23) 임영방, op. cit., 148.

24) Ibid. 148.

25) 박명희, op. cit., 41.

26) 박은주·은영자: 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에 관한 연구, 복식43호, 260, (1999).

를 지칭하는 동양풍, 서양을 기준으로 본 이문화적 취향의 이국풍등을 들 수 있다.²⁷⁾ 서양패션에 이국적인 요소의 적용은 민속의상, 장신구, 바디페인팅, 문신 등으로 이들에 나타난 형태, 색채, 소재와 문양, 디테일 등은 현대 서양 패션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고, 민속풍은 후기 산업시대. 정보화시대에 적합한 패션주제로서 서양 패션문화에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였다.

건축에서는 지역적 특성의 융합은 토속성으로 특징지어졌으며, 이는 토착적이고 민속적인 개념과 도시의 전통적인 개념을 적극적으로 재생하기위하여 다양한 지역의 특유의 전통적인 형태의 단편을 장식적으로 삽입하여 잘 알려진 요소의 선택에 의한 관심과 친숙으로 그 지역이나 도시와 연결되게 하여 오늘날 대 도시적 상황에서 잃어버린 지역적 특성을 대변하고 있다.²⁸⁾ 이러한 건축에서의 토속성은 각 국가나 지역의 개성을 살릴 수 있음은 물론 풍요로운 삶의 공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욕구에 부흥하는 양식으로 의미가 있다.

4. 현대 직물디자인에 나타난 절충주의적 경향

직물디자인은 직물의 산업화가 성립되면서 출현한 이래로 좋은 질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직물산업에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어지면서 디자인개발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폭 넓게 행하여 졌다.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도 직물디자인은 디자인 개발을 위해 예술과의 교류가 활발하였으며, 예술에서와 같이 작가의 내면세계를 자유롭게 표현하여 개성적이고 독창적인 디자이너의 예술철학을 전달하므로서 단지 직물표현에 문양을 그리는 것을 넘어 그 시대정신과 예술적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1980년대에는 직물디자인이 당시의 문화, 예술 분야에서 부상되고 있던 실험적 양식인 절충주의에 의해 새로운 변화의 양상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개념을 탈피하고 민주적이고 자유분방한 방식으로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었다.

절충주의에 의한 표현은 직물디자인에 관계된 지역, 시대, 감각, 용도의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는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 고급과 저급, 남과 여등의 상호 대립적이고 이질적인 요소들을 융합하여 보다 완성된 표현을 제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대립적 요소들을 그 상태로 병렬하므로서 아이러리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이처럼 다양성을 수용하는 절충주의는 기존의 질서를 무시하는 반 디자인적이고 전위적인 표현을 나타내었고, 조화로운 미에 대한 기준을 변화시켜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므로서 직물디자인에 새로운 경향을 제시하였다.

4-1. 문화적 요소의 복합

20세기 후반의 특징적 문화현상인 대중문화의 대두는 인간의 욕구와 취향을 문화형식에 포함시켜 문화를 보편화 하였고, 문화의 주변부에 있던 하위문화적 요소들을 전면으로 등장시키므로서 하위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대중적이고 하위 문화적 요소들은 당시에 유행하던 절충주의에 의해 주류문화에 도입되고 혼합되어 패션을 주도하고 유행을 선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대중문화와 고급문화의 벽 허물기는 혼성형식을 등장시켰고, 이는 확실한 미적가치의 부재, 뚜렷한 분류 특성이 없는 혼란스러움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상반된 미적 가치가 합쳐진 사상과 가치공존이 주류를 이루면서 하위문화의 예술화, 고급 예술의 상품화라는 새로운 미적개념을 제시 하였다.

현대의 직물디자인도 이러한 문화적 변화양상을 수용 하므로서 직물디자인의 구성 요소인 주제 및 그 안에 사용된 소재, 문양, 색상이 현대의 문화적 특성과 내용을 담아내고 있다.

4-1-1. 하위문화의 예술화

2차 대전 후 산업의 발전과 청소년층의 경제권에 참여로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그들 특유의 청소년 문화가 탄생되었고 여기서 파생된 하위문화 스타일은 현대 유행을 이끄는 음악, 패션, 디자인에 영향을 미쳤다. 청소년문화의 반항적 태도를 가시화시킨 거리패션은 영국의 팝 뮤직가수들에 의해 주도되어 하위문화로 본격적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는 패션 및 직물디자인에 획기적인 계기를 제공하였다. 특히 거리 패션에 나타난 핑크감각의 구축, 패션 법칙의 파괴 등은 새로운 예술적 표현으로 평가되었고,²⁹⁾ 이러한 모티브들이 하이패션에 도입되고 절충되어 새로운 미와 매력을 창조 하므로서 디자인의 고정관념을 탈피하였다.

직물디자인에 적용된 거리패션은 정적이고 기교중심의 완벽성을 요구하는 종래의 직물디자인에서 벗어나 즉흥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잔혹한 느낌을 나타내므로서 당시에 유행 하던 패션디자인의 미학을 보충하였다. 거리패션은 대중적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재현하고 개인적인 것을 대중적으로 형상화시킨 팝 이미지를 사용하였고, 이것은 기호, 문자, 숫자, 그래피티 등의 문양으로 나타나고 있다.³⁰⁾

(그림1)은 낙서를 이용한 고급 가구용 직물디자인으로서, 낙서문양을 정교한 자카드직으로 표현하므로서 낙서를 문양화하여 새로움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첨단소재 검정색 슬릿 필름은 직물에 고풍택과 주름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붉은색의 낙서문양과 대조를 이루면서 현대적이고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낙서기법은 최고급 직물디자인에도 (그림2)와 같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오프튀뜨르(Haute Couture)의 꾸뜨리에 중 하나인 크리스찬 라크루와

27) 김민정, op. cit., 40.

28) 박명희, op. cit., 22-23.

29) Ibid., 46.

30) 양희영 · 양숙희, op. cit., 544.

(Christian Lacroix)의 프레타 포르테(Pret-a-Porter)를 위한 스카프 디자인의 프린트용 밑그림으로서, 종래의 정적이고 기교중심의 완벽성을 요구하는 디자인에서 벗어나 하위문화 요소적인 즉흥적이고 낙서적 문양과 풀라지 기법을 사용하여 고급취향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으며 회화작품을 보듯한 자유분방함을 느끼게 하여 준다. (그림3)은 스트리트스타일 패션으로 고급 국제적 패션쇼에 등장되고 있다. 직물에 사용된 만화, 낙서적 이미지는 매우 밝은 색상, 기능적 소재와 어울려 강한 패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4-1-2. 고급 예술의 상품화

1960년 이후 사회전반에 대중소비 집단이 형성되면서 대중문화의 상업적인 성공을 위해 기존의 고급미술이 지녔던 고급취향이 대중문화에 가미되어 미의식에 대한 전환을 유도하는 시도가 전개되었다. 이는 대량생산과 반복성의 개념을 사용하여 고급예술이 지녔던 유일성과 특수성을 완전히 보편화, 민주화시켰다. 이는 과거거장의 작품을 똑같이 복제하거나 재해석하여 응용하고, 유명 스타들의 이미지를 현대적 기법을 이용하여 새로운 이미지로 재창조 하므로서 이전에 이들이 지녔던 특수성은 파괴하고 단순한 이미지로 전도하여 일반 제품에서의 소재와 같이 상품화 하였다. 특히 현대 직물디자인 기법으로 크게 각광받은 실크스크린 기법은 대중적 이미지 구축 및 무채색에서 벗어나 원색의 대담한 사용으로 현대의 화려하고 선명한 직물디자인의 특성을 구축하였다.

과거의 회화 작품을 응용한 직물디자인인 (그림4)는 20세기 초 화가인 소니아 들로네 (Sonia Delaunay)의 작품으로 아르데코적 문양이 밝은색으로 경쾌한 리듬감 있게 전개되어 시대를 초월한 신선한 감각을 나타내고 있다. 소니아 들로네는 당대에 이미 자신의 회화작품을 직물 디자인에 적용시키므로서 순수예술의 실용적 응용에 관심을 가졌으며, 당대 및 후대의 예술가들이 직물디자인과의 교류를 통해 예술적 소재를 개발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였다. 과거의 거장 작품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현한 (그림5)는 이세이 미야케 (Issay Miyake)의 '게스트 아티스트 시리즈(Guest Artist Series)'인 플리츠 드레스로서, 19세기 화가인 앙그르의 누드화를 새롭게 현대적 이미지로 풀라주하여 직물에 전사시키므로서, 이 드레스를 착용하였을 때 3개 인체가 어울리면서 환상적인 효과를 연출하게 디자인하였으며, 그의 디자인 철학인 시각적 호소와 기능적인 면 모두를 고려한 우리시대의 본질을 반영한 옷이다.³¹⁾

현대의 미술작품 또한 (그림6)과 같이 직물디자인에 도입되어 새로운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앤디워홀의 작품인 '마릴린 먼로' 작품을 응용한 것으로 친숙한 스타의 얼굴

을 주제로 삼아 반복 배열하여 대중적인 이미지를 구축한 것이다. 마릴린 먼로 얼굴의 크기와 색채에 변화를 주어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한 후 신체에 밀착된 드레스에 활용하므로서 일반드레스의 직물디자인과는 매우 다른 효과를 표출하고 있다. 이에 사용된 실크스크린 기법은 다양한 색상과 정교한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다.

4.2. 시대적 감각의 융합

현대의 직물은 미래적이며 전통적인 시대의 감각을 동시에 표출하고 있는데,³²⁾ 이는 시대적 절충에 의한 표현으로서 직물디자인에 다양성을 제시하고 있다. 직물디자인의 시대의 절충적인 성격은 조형의 순수성을 거부하고 클래식과 모더니즘, 아방가르드와 노스텔지어의 대립적인 요소를 동시에 수용하며, 소재 및 기법의 사용에 있어서도 수공예적 기법과 현대적인 테크놀로지를 동시에 반영시키면서 문화적 측면에서와 같이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절충현상은 1980년대의 사회적 흐름과 결부되어 나타나게 되었다. 이시기는 70년대의 경제적 침체에서 벗어나 생활상승으로 고급화 경향과 세기말 현상인 새로운 천년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과거로의 회기를 열망하므로서 복고풍이 대두되었고, 이로써 직물디자인에서는 정교하고 장식적인 공예기법과 전통적 패턴이 부활되었다.³³⁾ 또한 첨단 섬유공학 기술에 의한 새로운 섬유소재의 개발과 자동화된 생산 과정의 발전에 의하여 미래적이고 하이브리드한 직물이 생산되었는데 당시의 감성 추구의 분위기에 의해 첨단직물과 공예적 감각을 결합하는 시도가 전개되었는데 이러한 시대적 감각의 절충은 직물디자인의 현대적 개념 구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4-2-1. 복고풍

현대 직물디자인에 나타난 복고풍은 부분인용이나 형식의 차용에 의한 중복성의 범위를 넘어 전통적 요소들을 현대에 맞게 재해석하는 것으로, 고대의 고전적이며 우아한 이미지와 현대적 감각을 접목시켜 장식적이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기능적으로 전환하거나 과거의 친숙한 요소들을 인용하여 패러디 하므로서 흥미를 유발시켰는데 이와 같이 아이러니한 대조를 강화시켜 단순히 과거의 모방이 아닌 과거를 이용 더욱 새롭게 발전, 재생시키는 방향으로 과거에 대한 대중적 기호를 충족시켜 주었다.

현대의 디지털 기술은 무한정한 역사의 저장과 전달을 가능하게 해주어 과거의 이용과 접근이 수월하게 되어 과거는 광범위한 이미지 콜렉션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과거의 문양을 이용한 프린트 직물의 경우 (그림7)과 같이 손으로 정교하게 그려진 박물관의 과거 자료에서 발췌한 문양 및 장식

31) Sarah E. Braddock and Marie O' Mahony: Techno Textiles, Thames and Hudson,117, (1999).

32) Chloe Colchester: The New Textiles, Thames and Hudson, 6, (1991).

33) Ibid.,8.

적 요소를 이용하여 이를 현대적 파스텔 색상과 배치시켜 새로운 감각을 전하기도 하고, (그림8)과 같이 트롬프레이 (trompe l'oeil) 기법을 사용하여 허구와 환상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가구에 사용된 직물디자인은 박물관 자료에서 따온 람파스조직으로 직조된 옛날 직물을 현대적 색채와 프린트 기법에 의해 현대적 감각으로 조정되어 재현되고 있다. 또한 착시효과를 이용한 소파 직물은 1856년대의 영국에서 인기 있던 블록 프린트에 의한 디자인을 참조하여 1987-1988년에 스크린 기법에 의해 재생한 것으로서, 술 (fringe)부분을 입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착시효과를 강조하여 새롭게 프린트하므로써 고전적이면서도 유희적 표현으로 즐거움을 더해준다.³⁴⁾

과거의 역사적 내용을 인용하여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해석함으로써 새로운 흥미를 제공한 직물디자인으로 (그림9)를 들 수 있다. 고대 그리스의 제왕과 건축의 기둥모티프를 엄청난 크기로 확대, 왜곡시켜 풍자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디자인은 반복 크기가 104cm이고 기둥은 카테일용 막대와 같이 꾸부러져 왜곡되었으며 이를 흑백의 현대적 감각으로 프린트로 재현하여 프린트 디자인에 기지와 유머를 포함한 디자인 방법을 제시 하였다.³⁵⁾

4-2-2. 신기술과 수공예의 접목

80년대에 이르러 직물은 고도의 과학 기술을 주축으로 한 첨단 소재에 자유로운 감성과 유희감각을 불어넣어 인간의 감성적 측면을 강조한 새로운 스타일로 나타난다. 하이테크 놀로지와 감성의 접목은 테크노와 크래프트의 공존으로 이러한 절충적 시도는 현대 직물디자인에 다양한 표현과 기묘한 변화를 유도하여 직물디자인이 고정관념을 탈피한 혼용 현상이 두드러진다. 인간적인 감성의 표현을 바탕으로 하는 수공예는 토속적 느낌, 자유로운 표현, 불완전성을 특징으로 하여 현대 디자인의 감성적 접근의 주요 방법으로 부상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미 첨단소재에 수공예 기법을 도입하여 감성적이고 시각적인 측면을 부가시켜 직물의 기능성과 함께 감각적 영역을 확대시켜 다양한 효과를 창출하였다. 일본의 대표적인 직물디자이너인 주니찌 아라이(Junichi Arai)는 1950년부터 꾸준히 개발해온 아름다운 광택의 금속성 섬유를 이용하여 첨단직물을 개발하였다. 이는 폴리에스테르, 나일론 등의 필름에 알루미늄, 티타늄 등의 금속을 진공 증착시킨 다음 투명 락카를 양면에 바른 후 이 필름을 줄피로 가늘게 잘라 실로 만들어진 슬릿 안 (slit yarn)을 날실로 사용하고 견, 모, 마 등의 천연섬유를 씨실로 하여 직조함으로써 첨단직물이 완성되고 이 직물은 금속성 실에 의해 상당히 강한 반사효과를 나타낸다. 이 첨단직물에 일본 전통적

직물 문양기법인 시보리 기법을 적용시켜 (그림10)과 같은 예술직물을 창조하였다. 시보리 기법은 문양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고, 바탕천은 산과 알카리를 이용하여 금속부분을 녹여(melt-off) 투명한 폴리에스테르만 남겨지거나, 천연섬유를 태워(burn-out) 금속성 섬유를 남기고, 남겨진 각각의 투명한 폴리에스테르

나 금속성 부분은 다시 염색되어 방염된 시보리 부분의 문양과 대조를 이룸으로서 감성과 기술이 어울려지는 독특한 미감을 창출하였다.³⁶⁾ 또한 예술직물 생산에 대표적 일본의 직물기업인 누노(Nuno)는 첨단기계와 기술을 적절히 사용하여 수공예 직물에서와 같은 자연적이며 우발적이고 때로는 불완전하게 보이는 디자인을 시도하여 감성적 효과를 부가하고 있다. 누노는 첨단 소재에 수공예적 효과를 가하거나, 첨단 기계의 일부를 수동으로 조작하여 의도적으로 결함을 노출시켜 수공예직물에서와 같이 흠을 포함하게 하고, 이질적인 재료를 혼합, 제작하여 각기 다른 실의 탄성에 의해 직물면의 왜곡을 조장하기도 한다.³⁷⁾ (그림11)은 모와 레이온의 수공예적으로 킬트된 바탕천에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수공프린트함으로서 화학적 반응으로 레이온섬유는 녹아 없어지고 불규칙한 표면효과를 나타낸다. 이러한 표면효과는 오래된 직물에서 나타나는 섬세하고 자연스러운 미로서 누노사는 이에 의미를 두어 의도적으로 직물을 부식시키는 방법을 택하였다.

영국의 나이젤 마샬 (Nigel Marshall)은 다양한 소재와 이들의 실용적 응용에 대하여 연구함으로써 매우 장식적이고도 구조적인 직물을 창조하였다. 특히, 나이젤은 전통직물제작 기법인 수직 및 니트 조직을 이용하여 절단된 필름이나 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일차적으로 직물 면을 구성한 다음 다양한 후가공방법인 라미네이트 기법, 열고착 기법, 그리고 진공 형태 가공 방법 (Vaccum-forming)을 사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입체적 직물 면을 창조하였다. (그림12)는 절단된 슬릿 필름과 플라스틱 그리고 금속재료를 이용하여 평직으로 수직한 다음 라미네이트 기법으로 접착시킨 다음 사선으로 절단한 것이다. 이 직물은 여러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고 또한 대단한 강도를 가지고 있으며 의상, 패션소품, 벽지, 가구 등에 두루 사용되고 있다.³⁸⁾

4-3.지역적 특성의 혼합

20세기 후반은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제 3세계권 국가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일어났고, 이들 문화에 대한 이해와 폭넓은 수용이 이루어졌으며 이와 함께 이질적이고 이국적인 문화적 요소들이 문화, 예술 전반에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당시의 다원주의적 사회흐름에 따른 서유럽

34) Mary Schoeser and Celia Rufey: English and American Textiles, Thames and Hudson, 231, (1991).

35) Ibid., 235.

36) Cara McCarty and Matilda McQuaid: Structure and surface, Harry N. Abrams, 22, (1998).

37) Chloe Colchester, op. cit., 40.

38) Sarah E. Braddock and Marie O' Mahony, op. cit., 77.

이외에 지역의 전통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 자각, 가치 발견과 급진적 과학 발전과 산업화로 인해 환경 위기에 직면하게 된 현대인들이 자연과 고유문화에 대한 노스텔지여에 기인된다. 그리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혹은 남미의 문화에서 영향을 받은 장식성이 강한 민속적, 원시적 요소가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형태의 서양복식과 혼합되거나 직물디자인에 절충되어 민속풍, 원시풍의 패션 주제로서 등장하여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절충적 양식은 주로 상징, 은유 등의 형식으로 나타나 문명에 물들지 않은 아프리카의 감각을 상징화하여 인간의 자유를 표방하거나, 순수한 인간정신의 향수로서 향토성에의 귀착으로 설명할 수 있다. 직물디자인에서는 이러한 민속고유의 염색, 패턴, 자수, 액세서리 등에서 나타나는 모티브와 이들에서 차용된 색채, 소재, 문양, 기법 등을 현대의 새로운 문화요소와 결합하거나 현대적으로 재구성하므로 새로운 미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4-3-1. 민속풍

현대 사회는 국제화, 세계화를 지향하고 있어 다른 문화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 보다도 고조되어 각 지역의 서로 다른 민속성에 의한 관습에 따라 발전된 전통문화는 새롭게 각광 받고 있다. 또한 이러한 민속풍의 대두는 세계화 과정에 대한 자국의 문화를 보호하려는 민속적, 지역적 정체성의 강화라 볼 수 있다.

민속풍은 민족 특유의 풍속, 풍습, 모양, 소재, 기법을 바탕으로 토속적이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질게 나타내므로서 현대 산업사회의 기계화되고 획일한 디자인에서 벗어나 개성화, 다양화된 표현을 제공하므로서 각광 받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바틱, 인도의 방염기법, 일본의 시보리 기법과 동양 자수, 매듭, 패치워크, 블랙 프린팅, 퀼트, 어플리케 등은 현대의 의상, 직물디자인에 장식적 요소 및 무늬, 민속적 색상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도입되어 이국적이면서도 세련미를 나타내며 동·서양의 절충에 의한 절묘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일본의 전통의상 기모노의 부분장식인 오비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된 (그림13)은 브로케이드 직물로서, 복잡한 조직과 다양한 색채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브로케이드 기법은 다양한 장식적 효과를 낼 수 있는 기법으로 주로 고급직물에 사용되어 정교한 직물 면을 형성해 준다. 이 직물은 일본 전통 모티브를 대담하게 현대적으로 재구성하고 이를 브로케이드 기법으로 정밀하게 표현하였으며 미묘한 색채효과와 더불어 동양적 우아함과 현대적 세련미를 동시에 풍기고 있다.

이국적 직물디자인을 특징으로 하는 에트로는 (그림14)에서와 같이 중국풍의 문양을 서구적 감각으로 재구성하고 장식적 모티브를 위사 브로케이드 기법을 사용하여 사치스럽고 장식적 경향이 강한 동양적 정서를 섬세하고 우아하게 전달하고 있다. 색채의 사용에서도 에트로는 중간색 톤의

다양한 색을 구사하여 은은하고 정적인 동양의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나탈리 듀 빠스퀴에(Nathalie Du Pasquier)는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현대적 양식으로 직물에 표현한 디자이너이다. 그녀는 현대 문명의 상징인 컴퓨터를 사용하여 도시적, 민속적, 역사적, 특히 고급과 저급 모두의 문화로부터 이끌어낸 장식적 기호, 상징 및 패턴들을 겹쳐서 합성하였다. (그림15)의 카페트 디자인은 각기 다른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데 즉 만화적, 낙서적 이미지, 1950년대의 건축과 페르시아 카펫이나 인디안의 나바호전통 직물 등을 합성함으로써 환각적 패턴을 형성하였다.³⁹⁾ 이러한 빠스퀴에는 패턴을 풍자적이고 은유적으로 사용하여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였으며, 이질적 요소를 이용한 복수적 디자인 접근 방법으로 긴장감을 유발하였으며 각기 다른 성격의 다양한 문화적 요소가 패턴으로 어우러져 이국적 분위기의 직물디자인을 시도함으로써 현대 직물디자인에 새로운 미의식을 고취시켰다.

4-3-2. 원시성

현대의 물질 만능주의에 의해 야기된 인간성 상실에 의한 비인간화 및 정신적인 공황으로부터 이에 대신할 정신적 기반을 찾고자하여 원시성에 대한 추구가 일어났다. 원시성의 대두는 인간 본연의 명쾌한 표현이자 순수한 감정의 표출로서 원초적인 것에 전념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아프리카의 강렬한 원시적인 야수성과 순수성에 대한 향수라 할 수 있다. 현대의상, 직물 디자인에서는 이들에서 나타나는 강렬한 표현성, 명쾌한 구성, 단순한 기법 등을 현대적 재료, 기법 및 구성법과 절충하여 자유분방하고 개성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16)은 최현대적 아이디어와 원시성이 절충된 의상이다. 현대적인 메탈드레스를 해마다 발표하는 파코라반은 메탈소재를 아프리카 전통적 민속무늬를 모티브로 한 드레스 직물제작에 사용하여, 원시적 느낌과 현대성의 공존에 의한 전위적 표현을 시도하고 있다. 메탈소재는 광택으로 인해 원시성에대한 상징적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단순하고 규칙적인 전통패턴은 미니멀한 효과를 강조하므로 금속성 재질과 조화되어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전통문양을 모티브로 한 (그림17)은 이세이 미야케에 의해 디자인된 바디 타이즈로서 일본의 전통문신에 사용된 문양을 현대적 재질의 타이즈에 프린트하여 원시성과 현대성이 공존하고 있다. 이 바디타이즈에서 나타나는 질감은 인체에 실제로 문신된 것처럼 사실적으로 느껴지며 고무와 합성섬유의 혼합직물은 장식적 기능의 문신과 어울려 새로운 타입의 피부로 전환되어 본능적인 에로티시즘과 생동감을 전하고 있다. 강렬한 색채에 의해서도 원초적인 생명력은 표출되고 있는데 (그림18)은 원색의 대비를 이용하여 원시적, 자연적 요소를 현대적 감각의 문양으로 프린트하여 원시적요소의

39) Chloe Colchester, op. cit., 35.

현대적 절충을 시도하였다. 또한 상체에 밀착된 투명소재는 인간의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에로티시즘을 표현해주고 있으며 의상에 부가된 악세사리에서 보이는 종족의 상징적 문양은 원시성에 대한 현대인들의 의식과 열망을 상징적으로 표출하는 원시성으로의 회귀를 나타내고 있다.

5. 절충주의적 경향에 의한 현대 직물디자인의 특징

5-1. 직물디자인에 대한 시각의 전환

직물은 한시대의 생활상과 사회상, 문화적 양식 그리고 그 속에서 형성된 예술적 양식을 반영하므로서 대중들의 취향을 충족시켜 왔다. 현대의 직물도 시대적 배경, 지역적 특성, 문화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국제화, 다양화된 모습으로 현대인의 개인적이고 사적인 취향을 충족시키며 동시에 다원화된 국제사회에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미의식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대직물의 특징인 국제화, 다양화는 절충주의 양식을 통해 극대화되어 나타났다.

절충주의는 다양한 양식의 혼합을 의미하는 대명사로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해내는 하나의 가능성이라 할 수 있다. 현대 직물디자인에서 절충주의 양식은 동양과 서양, 부와 빈곤의 사회·문화적 범주와 과거와 현재라는 시대적 맥락을 포괄하고 이들을 융합 시키므로서 상반된 미적가치가 합쳐진 사상과 가치의 공존이 주류를 이루면서 새로운 미적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성을 수용하는 절충주의는 직물디자인의 구성요소들 즉, 아이템, 소재, 문양 및 색상 등에 이질적 요소의 도입, 강조, 왜곡을 통해 새로운 형식으로 표현하여 새로운 변화를 야기 시키고 있다. 이는 시간, 지역을 초월하여 소재와 기능적인 면에서 의의성을 띤 사용으로 직물표현기법을 극대화 하거나 시대를 초월한 디자인과 유희적 기법을 통해 직물의 고정관념과 미적 기준 변화를 요구한다. 이러한 절충형태는 새로운 의미로 지각되는 방식을 강조하므로서 디자인의 어휘를 확장하여 대중적 취향과 다원성을 채택하므로서 다양성을 창조하였다.

이러한 현상들은 직물디자인에 새로운 시각이 요구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현대사회에서 직물디자인이 수용하여야 할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사회적 기능 수행으로서 생활 필수품으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 현대의 복합적인 사회에서 가속적으로 스타일을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갖게 되어 기성의 가치를 초월한 시도가 다양하게 전개 되었다.

5-2. 유희적 표현

현대 직물디자인은 종래의 심미적 균형미를 중시하는 표현 방법에서 벗어나 기존적인 것과는 다른 각도 즉 역설적이거나 예기치 않은 다양한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

로 등장한 유희적 표현은 새롭고 전위적인 형식을 직물디자인에 제시하였다. 유희적 표현은 인간적인 요소 즉 불합리, 흥미, 유머, 안식 등의 자유로운 감각의 표현으로서, 직물디자인에서 이러한 표현은 직물의 기능적 측면이나 과시적 측면은 상관하지 않는데서 오는 결과이다.

유희적 표현은 절충주의 기법에 의하여 차용과 아이러닉 효과를 회화적으로 표현하여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과거의 내용을 차용하여 새로운 영감을 창조하므로서 기존의 신성 영역을 침범하여 놀라움과 기묘한 유희감을 나타내거나 서로 다른 요소들을 병렬상태에 놓음으로 아이러닉한 분위기가 연출되어 유희를 느끼게 한다. 또한 이질적인 것을 결합하여 과장되고 극단적인 느낌을 만들어 웃음과 혐오, 유쾌함과 불쾌감을 동시에 유발하기도 한다. 이와 함께 시각적 착시 기법을 이용하여 현실과 환상을 양립 시키므로서 허구적 디자인으로 나타내거나 남성적 소재에 여성적 장식을 도입하여 기대와 예상을 깨므로서 유희감과 신선함을, 직물 재료의 관계성을 극복하고 일반 산업재료 혹은 일상 재료를 직물에 사용하므로서 그것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어긋남과 임의성을 통해 우연성과 유머를 나타내고 있다. 현대 직물디자인에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을 최근 문화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심각하고 진지한 것 보다는 가볍고 즐거운 것, 피상적인 모습에 관심을 가지는 경향으로, 고정적인 스타일에 얽매이기 보다는 개성을 표현하는 자연스러운 스타일을 추구하는데 기인한다.

5-3. 다문화적 표현

오늘날은 정보화와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문화영역이 세계화되고 있어 다양한 문화에 대한 관심과 수용을 촉진한다. 그리하여 최근의 문화적 정체성은 문화의 차이, 다양성, 다원주의에 민감하여 절충주의 양식에 의해 표현되어져⁴⁰⁾ 다중적 정체성과 다문화 주의적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문화적 다양성과 상대성에 근본을 두고 문화의 차이를 존중하면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으로서, 이러한 상이하고 이질적인 문화들이 단순히 타 문화에 흡수되거나 자 문화에 통합되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뒤섞이는 혼성문화를 창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아래 사회·문화적 삶에 가장 밀착되어 있는 직물은 시대적 상황인 다문화 주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드리므로서 이국적인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고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게 되었다.

현대 직물은 문화의 차별화, 문화의 개별성을 인정하므로서 비주류 문화에 대한 적극적 수용과 융합 현상이 일어났으며 이는 기존에 있었던 것을 한 단계 발전시켜 새로운 혼성스타일을 창조하였다.

다양한 문화의 접촉과 자극에 의하여 창조된 혼성스타일은

40) 최혜정·임영자: 20세기말 현대패션에 나타난 다문화주의 현상에 관한 연구, 복식 51권 2호, 150, (2001).

여러 가지 요소들의 조합이나 절충을 통한 퓨전, 하이브리드 직물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직물은 모든 문화의 혼합, 컬처 믹스라는 개념을 포함하면서 컬러, 기술, 문화, 패턴이 뒤섞여 자유로움과 즐거움을 더해준다. 이러한 직물의 다문화적 접근은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잡종과 변종의 전혀 새로운 것의 탄생으로서 한 단계 발전된 형식으로 바뀌어 가게 되어 새로운 기준을 제공하여준다.

6. 결론

20세기 후반에는 사회의 다변화에 의해 삶·문화·장르간의 벽 허물기가 이루어지는 절충현상이 나타났고, 이는 전 분야에서 혼혈적이고 다층적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새로운 현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사회·문화적 양상을 반영하고 있는 직물도 이러한 절충주의 양식에 의한 융합현상으로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의거하여 새롭게 등장한 절충주의적 양식을 현대예술의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 예술에 나타난 경향을 토대로 직물디자인의 흐름을 예술과의 연관성으로 파악하여, 여기서 나타난 절충주의적 경향을 분석하고 이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현대 직물디자인은 대립적 요소를 동시에 수용해 문화적, 시간적, 공간적 절충과 초월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급문화와 저급문화, 현대와 과거, 동양적 요소와 서양적 요소를 혼합·절충 시키고 있다. 이러한 절충현상으로 나타난 현대 직물 디자인의 경향은 다음의 3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문화적 절충경향으로 문화의 차이·다양성을 인정하므로서 기존의 고급문화와 저급문화의 구별에서 탈피하여 거리패션과 하이패션의 절충형태로 나타나며,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이 혼합과 절충으로 디자인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패션과 미에 대한 다양한 기준이 인정받게 되었다.

둘째: 시대적 절충경향으로 하나의 디자인에 여러 시대의 이미지를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으로 과거를 차용하여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여 절충시킨 복고풍과 전통과 테크놀로지 융합에 의한 디자인 방법이 나타났다. 이러한 시도는 직물디자인에 창조적이고 예술적인 신선한 감각을 부여하였다.

셋째: 지역적 절충경향으로 서구문화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적 가치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동양과 서양의 절충, 각 지역 요소의 절충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순수한 인간 정신의 향수로서 향토성에의 귀착으로 설명되고, 민속적 요소들은 현대적 문화요소들과 결합하여 새로운 미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상의 경향으로부터 본 현대 직물디자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 직물디자인에 나타난 절충현상은 복합적인 사

회에 대한 인간 수용방식의 변화를 표현하여 직물디자인에 대한 시각의 전환을 가져왔고, 둘째, 인간의 감성적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이의와 결부된 유희적표현을 증시하였으며, 셋째,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으로 이국적이고 이질적인 혼성스타일이 창조되어 현대의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통용 될 수 있는 보편적인 미의식을 포함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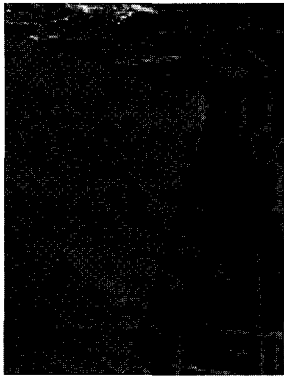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직물디자인에 나타난 절충주의적 경향은 현대의 복합 다단한 사회·문화적 양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개인의 취향이나 자유로운 사고를 더욱 존중하여 주는 인간 존중의 경향이라 할 수 있다.

21 세기를 맞이하여 다양화된 사회에서 인간은 스스로의 삶의 의미를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게 되고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욕구가 높아지게 될 것이므로 다양성, 다원성에 기초한 절충주의는 시기 적절한 것이며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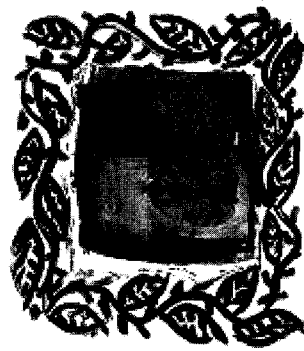
본 연구는 새로운 문화코드로 떠오른 절충주의적 현상을 현대 직물디자인의 흐름에서 그 경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표현방법을 분석하므로서 현대직물디자인의 이해와 함께 21세기 직물디자인 경향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참고문헌

- Braddock. E. Sarah and O' Mahony, Marie. *Techno Textiles*. London: Thames and Hudson Ltd, 1999.
- Braddock. E. Sarah and O' Mahony, Marie. *Textiles and Technology 2010*. Brighton: Artemis London Ltd, 1994.
- Colchester, Chloe. *The New Textiles*. London: Thames and Hudson Ltd, 1991.
- Fashion: The collection of the KYOTO CUSTUME INSTITUTE, taschen, 2002.
- Jenkes, Charles, *What is Post-Modernism*, 도서출판 청람, 1995
- Larsen, J. Lenor. *Furnishing Fabrics*. London: Thames and Hudson Ltd, 1989.
- McCarty, Cara and McQuaid, Matilda. *Structure and surface*. New York: Harry N. Abrams, 1998.
- Schoeser, Mary and Rufey Celia. *English and American Textiles*. London: Thames and Hudson Ltd, 1991.
- 경노훈·윤민화: 디자인 문화와 생활, 도서출판 예경, 1999.
- 김민정: 20세기 말 패션에 나타난 Crossover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1995
- 다카하시히데지, 유재길 역: 서양 미술사, 조형사, 1996
- 박명희: 1980년대 패션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1991.
- 양희영·양숙희 : 20세기 후반 패션에 나타난 절충주의 적 경향, 한국 의류학회지 Vo1. 24, No.4, 2000
- 윤도근: 포스트모더니즘과 건축, 포스트모더니즘과 문화, 문예출판사, 1991
- 이봉덕: 21세기 전환기 패션의 미학적 특성, 숙명여자대학교, 2000.
- 이선화: 현대패션에 나타난 Textile Design 연구, 복식 제 21호 1993.
- 이정후·안선경·양숙희: 현대복식에 나타난 매너리즘(Hannerism)적 경향에 관한 연구, 복식 제 33호, 1997
- 임영방, 포스트 모더니즘과 미술- 건축에 있어서의 다의성과 절충주의, 예술과 문화연구, 1993.
- 전해정·나현신: 복식의 역사적 절충주의 양식, 한국의 류학회지 Vo1.25, No.10, 2001
- 존 워커, 정진국역: 대중매체시대의 예술, 열화당, 1987.
- 최혜정·임영자: 20세기말 현대패션에 나타난 다문화주의 현상에 관한 연구, 복식 제51권-2호 2001.



1.N.V.Albert Van Haver,
Belgium,
Furnishing Fabrics.
p.149



2.Christian Lacroix 1988/89,
The New Textiles. p.42



3.Christian Dior,
2002,
스포츠테크, p.147



4.Sportmax,
1990, S/S
Collezioni



5.Issey miyake and
Yasumasa mogimuga,
1996/97,
Technpo textiles.
p.117



6.Gianni Versace,
1991, S/S
Collections



7.Brunschwing and fils
U.S.A.
Furnishing Fabrics,
p.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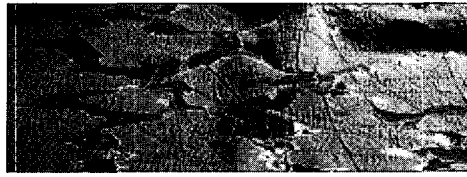
8.Titley &Marr (UK) and
Clarence House (U.S.A),
1856,
English and American Textiles,
p.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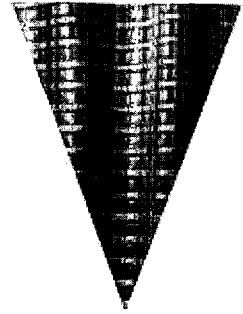
9.Timney Fowler,
1985,
English and American
Textiles, p.239



10. Junichi Arai,
1986,
Eclipse/melt-off
Junichi Arai, 개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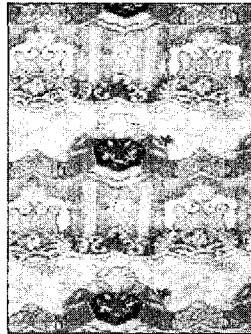
11. Reiko Sudo, Crackle Quilt, 1992
Textiles and Technology 2010, p.48



12. Nigel Marshall,
Textiles and
Technology 2010,
p.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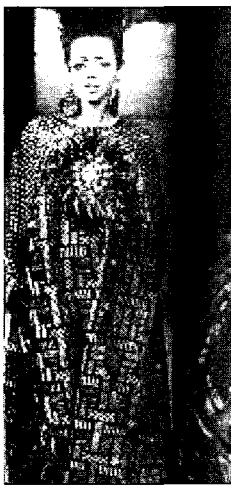
13. Brunschwing and fils,
U.S.A.
Furnishing Fabrics,
p.21



14. Etro, Italy,
Furnishing Fabrics,
p.37



15. Nathalie Du Pasquier,
The New Textiles,
p.79



16. Paco Rabanne,
1992/93, A/W,
Haute Couture
Collections



17. Issay Miyake,
1989, Tadoo Body,
Fashion: The collection
of the Kyoto Costume
Institute, p.645



18. Complice,
1994, S/S
Collections